



37년동안 미술자료를 수집해온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

“그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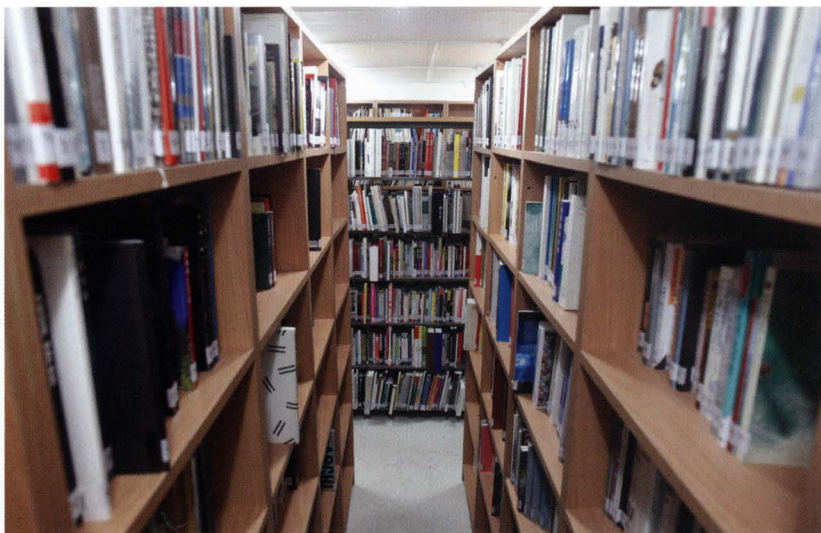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

소박한 이웃집 아저씨 같다. 작은 체구에 순해 보이는 인상,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겸손함이 영락없이 이웃집 아저씨다. 그러나 그는 마치 힘센 헤라클레스라도 되는 것처럼 미술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역사(力士)이며 역사(歷史)다. 37년 동안 미술자료를 수집하면서 18톤 분량의 귀한 자료들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으니 力士이고, 미술사의 자료를 거의 다 꿰뚫고 있으니 그 자신이 미술의 역사(歷史)이기도 하다.

경복궁 서쪽 담을 따라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 중간쯤에 검문소가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 3층짜리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건물이 있다. 아마 누군가의 단독주택이었을 그곳이 박물관으로 변신했는데, 그곳에는 김달진 관장이 수십년간 모은 자료 가운데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1층은 갤러리도 겸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료 수집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그는 모으는 것을 좋아했다. 잡지를 보다가 '명화'가 실려 있으면 예쁜 쉼트지에 오려 붙였다. 오리지널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외관과 내부



그림은 아니지만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한 장 한 장 모아지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다가 1972년에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보게 되었어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같은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서양의 명화를 모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수집벽은 그의 평생의 업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술잡지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게 되었다.

“이경성 선생님과과의 만남이 제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홍대 미대에 교수로 계실 때 자료를 들고 찾아갔더니 열성과 정성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후 이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초로 행정 관료 출신이 아닌 미술전문가로서 관장이 되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자료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성을 다했던 일인데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야 말해 무엇 하랴. 그는 자발적으로 금요일마다 직접 인사동을 다니면서 사장되는 자료들을 끌어 모았는데, 그런 그에게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열성을 다했다. 그러나 관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행사에는 관심이 많아도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료의 가치에는 무관심했다.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미술자료실에 대한 문제”라는 논문을 쓰는 등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부르짖었지만 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결국 1996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퇴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료 수집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 화가 개인에 대한 스크랩북만 해도 280명분에 달한다.

“미술계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려니까 고충이 많아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젠 내게 짐이 되네요.”

번듯한 박물관이 생긴 것을 축하하고 우리 사진계에서도



미술자료박물관 1층에 전시공간이 있어서 “한국미술사 + 화가의 초상”전이 열리고 있다.

배울 점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온 탓인지 김달진 관장은 보람에 비례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지난 2년 반 동안은 지하를 세 들어서 자료실을 갖다보니 비가 새서 귀한 자료들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그러다가 비로소 독립된 건물을 전세 내어 미술자료 박물관이란 현판을 걸었지만 그의 고민은 여전하다. 어차피 이 일 자체가 개인의 역량에 의지할 범위를 벗어난 탓이다. 그는 말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간만 해결해준다면 제가 모은 자료를 모두 내놓을 수 있는데, 여전히 전시행정에만 신경을 쓸 뿐, 관심이 없어 안타까워요.”

한국 미술인 인명록 발간

여건은 어렵지만 김달진 관장의 새해계획은 알차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근현대 한국미술인의 주요 정보를 수록하는 한국 미술인 인명록 발간사업을 진행,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유명 작가 몇몇을 빼면 작품은 있는데 작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자료수집과 정리처럼 중요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미비해요. 미술계가 양적인 팽창은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셈이죠.”

다행히 올해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어 한국 근현대 미술역사의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즐거워한다.

“이중섭 박수근 위작사건도 자료가 없으니 일어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자료를 잘 남겼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에 자료구축에 소홀한 것을 보면 역사의식에서 퇴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미술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에게 답이 있다. 그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는 전국에서 화랑이 107개, 2008년에 143개, 2009년에는 100개가 새로 생겨났고 30% 정도가 종료구에 생겼다. 아트 페어는 2007년에는 10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19개로 늘었다. 그만큼 작품이 팔린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는 미술계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정리해두고 있다.

“사진 쪽에도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으느라 애쓴 분이 있음을 아는데, 개인의 힘은 한계가



미술자료박물관 안에는 오래된 도록과 서적, 화집 등 귀한 자료들이 수집되어 한국 근현대 미술사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고있다.



창간 8주년을 맞은 미술잡지 서울아트가이드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계를 들여다 보면 스타 작가의 작품가격은 아주 높은 데 비해 일반 작가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요즘 사진이 너무 인위적이라면서 사진의 순수성, 기록성이 등한시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한다. 사진의 장점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어려서부터 자료를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맨날 신문조가 리만 오려서 밥 먹고 살겠느냐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보람이지요.”

그는 박물관 운영 외에도 매달 ‘서울아트가이드’라는 미술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서울아트가이드는 무료배포를 하는 무가지인데 좋은 필진들로 콘텐츠에 신

경을 써서 성공한 잡지로 꼽힌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미술관에서 살아 온 그의 성실함과 일관성이 지금 그가 좋은 잡지를 만드는 인적 자원이 되고 있는 것.

누구든 한 가지 일을 40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해오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회다. 더구나 그 일이 공익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는 사회라면 더욱 그러하다. 두 시간 동안 인터뷰한 박물관 2층의 실내온도가 두꺼운 코트를 벗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마음이 시렸다. 이리하고도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김달진 관장의 오랜 숙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가는 것은 그것이 미술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진계의 숙원이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예술정책의 내용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글 · 윤세영 사진 · 전강인